

觀光地化가 周邊 農村地域과 住民意識에 미친 影響*

— 長興, 大成里, 龍平觀光地の 事例研究 —

金 榮 亮**

〈차 례〉

| | |
|------------------------|-------------------------|
| I. 序 論 | 2. 社會文化的 影響 |
|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 3. 環境的 影響 |
| 2. 研究方法 및 資料 | IV. 觀光影響에 關한 住民意識 |
| 3. 研究 地域 | 1. 經濟的 影響에 대한 評價 |
| II. 長興, 大成里, 龍平觀光地の 現況 | 2. 社會文化的 影響에 대한 評價 |
| 1. 觀光者 推移와 季節의 特性 | 3. 環境的 影響에 대한 評價 |
| 2. 觀光施設 | 4. 觀光開發에 대한 住民의 意識 및 評價 |
| III. 觀光開發이 周邊地域에 미친 影響 | V. 綜合討論 |
| 1. 經濟的 影響 | VI. 結論 |

I. 序 論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최근 우리사회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도산업사회로의 변천의 결과, 보다 많은 餘暇時間을 누리게 되었고 觀光活動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본격적인 大衆觀光(Mass Tourism)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¹⁾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관광활동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관광대상지의 廣域化와 長距離化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른 觀光需要의 증가는 觀光産業을 활성화시켜, 기존 관광지의 규모확대와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을 자극하고 있다.

地域開發에 있어서도 觀光地開發은 地域經濟를 활성화 시키는 手段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²⁾ 이러한 견해는 관광산업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 수입을 이끌어 오고, 雇用을 창출하며, 무공해의 산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개발은 개발에 따른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외부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의 유출, 자연경관의 파괴, 환경의 오염, 사회문화적 악영향 등이 그것이다. 觀光開發의 影響을 評價하는 연구자들의 시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觀光開發의 影響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관광개발이 가져다 주는 經濟的인 利益을 강조하는 것이 많았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관광개발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³⁾ Pearce는 관광의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理한 것임. 指導教授이신 朴英漢教授님께 感謝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課程 卒業.

- 1) Mass Tourism은 관광객층이 일반대중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관광동기 또한 보양과 오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김중은, 길용현, 1988, 관광지리학, pp. 38~47.
- 2) 안중윤, 1981, 관광이 후진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5), 한국관광학회, pp. 137~143.
- 3) 전경수, 1986, 관광경제와 관광문화의 종속유형,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신현주, 1987, 관광산업의 발전이 그 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11), 한국관광학회, pp. 61~75.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취약한 方法論과 感傷主義가 혼합되어서 학문분과간에 樂觀論과 悲觀論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⁴⁾ 라고 하여 관광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당한 견해의 차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經濟的 影響, 社會文化的 影響, 環境的 影響의 세가지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되거나, 현지 주민 또는 관광 종사원의 意識의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광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드물고, 소지역에 대한 연구나 관광시장과 관련된 관광지의 立地의 特性을 고려한 비교연구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다.

특히 農村地域에서의 관광지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의 영향과 地域變化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농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며 村落共同體를 유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은 주된 관광자의 배출지인 대도시 시장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서 급격한 지역변동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은 우리사회에서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관광수요의 충족을 위한 새로운 관광지개발의 주 대상지라는 점과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일일관광의 증가추세로 볼때, 전국을 관광시장으로 하는 대규모 관광지 보다는 특정지역을 관광시장으로 하는 소규모의 관광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광개발이 관광지 주변의 소규모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관광지의 특성과 관련시켜 비교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지역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농촌지역에

입지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사례관광지는 長興國民觀光地, 大成里國民觀光地, 龍平리조트로서 서울 및 수도권을 주된 관광시장으로 하고⁵⁾ 유사한 관광자 규모를 지니면서, 관광시장에 대한 接近性을 달리하고 있다.⁶⁾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례 觀光地의 特性和 관광자의 觀光活動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관광의 經濟的, 社會文化的, 環境的 影響의 差異가 관광지 주변 農村地域에 작용되어 나타나는 變化의 樣相을 밝히고

둘째, 관광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地域變化에 대한 觀光地住民의 評價를 분석하고, 이를 地域, 觀光産業關聯 程度에 따라 비교하여

셋째, 觀光地의 特性, 觀光開發이 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域住民의 觀光影響 意識간의 相互關係를 파악하여 農村地域에서의 觀光開發이 발생시키는 觀光影響의 體系를 밝히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資料

본 연구는 2차 자료, 사례지역의 現地調査, 관광지 住民 및 業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II장은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고, 관광사업체 및 현지사정에 밝은 이장과 주민의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관광지의 특성과 현황을 밝혔다. III장에서는 관광활동이 관광지의 특성과 결합되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관광의 영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되었고, 지역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이 조사되었다. IV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식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광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자료는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및 통계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지역 별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 되었다.⁷⁾

4) Pearce, D. G., 1981, Tourism Development, p.43.

5) 관광자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거주자가 장흥 100%, 대성리 98%, 용평 95%로 나타났다.

교통부, 1985, 국민관광지개발 기본계획설계 - 장흥지구-,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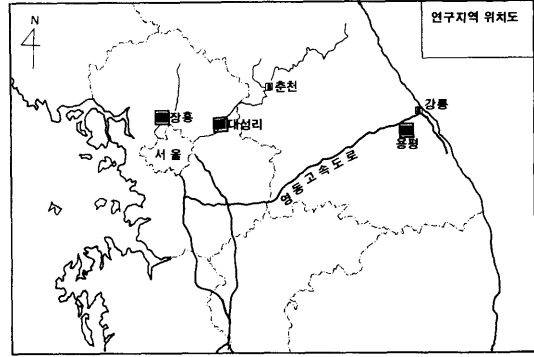
교통부, 1985, 국민관광지개발 기본계획설계 - 청평호반(대성리 지구)-, p.46.

김병문, 1986, “한국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9.

6) 서울 중심부에서의 직선거리는 장흥 18km, 대성리 44km, 용평 160km이다.

7) 설문은 장흥 61개, 대성리 60개, 용평 64개로 총 185개이며, 觀光産業과 關聯이 있는 주민집단과 관련이 없는 주민집단으로 구분되어 수집되었다.

주민의 의식에 대한 설문결과와 분석은 16개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1(부정적 견해)에서 7(긍정적 견해)에 이르는 수치로 표기하는 7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영향에 대한 평가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주민의식의 지역간, 관광산업관련 여부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과 Chi-Square검정이 이용되었다. 설문항목은 경제적인 영향, 사회문화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관광개발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연구지역의 위치도

3. 研究地域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장흥국민관광지가 위치한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石峴里(日迎1里 일부포함) 지역, 대성리국민관광지가 위치한 京畿道 加平郡 外西面 大成2里 지역, 용평리조트가 위치한 江原道 平昌郡 道岩面 橫溪里 지역이다.

연구지역은 농촌지역에 입지한 관광지이며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례 관광지는 연간 방문관광자의 규모가 비슷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관광시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광지의 관광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연구지역 위치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이하다. 연구지역의 범위는 行政里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용평리조트의 경우는 지역규모와 자료상의 문제로 法定里를 기준으로 하였다.

II. 長興, 大成里, 龍平觀光地의 現況

1. 觀光者 推移와 季節的 特性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자의推移는 세 관광지 모두 비슷한 관광자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 초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관광활동참여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는 국민관광지개발, 용평의 경우는 1986년 쌍용양회(주) 용평사업본부로 개편되면서의 시설투자과 규모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초기에 이들 관광지는 모두 季節的 變動이 심했으나 점차로 그 정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다. 관광자의 계절적 편중성이 觀光地經濟의 不安

〈표 1〉 年度別 觀光者 推移 및 季節的 集中度

(단위 / 명)

| | 년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합계 |
|-----|------|-----------|----------|-----------|----------|---------|
| 장 흥 | 1981 | 2,200 | 65,000* | 30,000** | 900 | 98,100 |
| | 1984 | 2,500 | 80,000* | 35,000** | 1,500 | 119,000 |
| | 1987 | 28,000 | 177,000* | 88,000** | 21,000 | 304,000 |
| | 1989 | 33,000 | 296,000* | 157,000** | 35,000 | 521,000 |
| 대성리 | 1981 | 9,010 | 102,714* | 63,070* | 5,406 | 180,200 |
| | 1982 | 10,735 | 122,379* | 75,145** | 6,441 | 214,700 |
| | 1987 | — | — | — | — | — |
| | 1989 | 189,393** | 289,134* | 130,533 | 34,468 | 643,528 |
| 용 평 | 1983 | 26,882** | 14,755 | 7,094 | 79,469* | 128,200 |
| | 1985 | 25,620 | 50,059** | 18,594 | 91,985* | 186,258 |
| | 1987 | 36,648 | 56,936** | 36,375 | 122,371* | 252,330 |
| | 1989 | 87,779 | 94,635** | 60,450 | 275,229* | 518,163 |

註:*1위, **2위

定과 관련이 깊음을 볼때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흥의 경우는 여름-가을의 계절적 집중의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으나 집중의 정도는 약간 완화되고 있다. 대성리의 경우는 여름-가을의 계절적 집중이 여름-봄-가을로 변화였고 집중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이는 봄, 가을에 주로 행해지는 대학생층의 수련회(일명 MT)장소로 각광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용평의 경우는 겨울-봄의 계절적 집중은 겨울-여름으로 변화하였는데 스키 시즌인 겨울철의 비중이 줄어들고, 여름-봄-가을 순의 비스키시즌에서의 집중도가 고르게 분포하는 4계절형의 관광지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 觀光施設

관광활동의 매개체인 관광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관광지의 특성들이 결합되어 그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게 된다. 관광시설의 분포 현황은 <표 2>와 같다. 관광시설의 주가되는 관광업체의 분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宿泊業(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 전문민박업), 飲食店, 카페 및 酒店, 觀光紀念品販賣業 및 觀光運輸業, 유기장 및 놀이시설, 잡화점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업체 종류의 지역별 분포패턴을 보면

장흥: 음식점 → 카페 및 주점 → 유기장 및 놀이시설

대성리: 잡화점 → 숙박업 → 음식점

용평: 음식점 → 숙박업 → 카페 및 주점

의 순으로 지역간에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의 경우는 음식점과 카페 및 주점의 비율이 71.1%로 매우 높는데 이는 이곳이 서울과 매우 근접한 관계로 當日觀光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행태적 측면에서 볼때 계곡을 따라 선상으로 형성된 관광지에서의 산책 및 피크닉활동과 더불어 음식점, 카페 및 주점 등의 관광시설내에서의 위락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성리의 경우는 잡화점과 숙박업의 비율이 68.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여기에 음식점(23.4%)을 포함하면 관광시설의 92.1%로, 관광시설의 분포가 매우 단조로움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잡화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학생층의 관광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이들의 관광행태가 야외위락활동과 一泊의 수련회를 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 지역의 숙박업체의 분포를 보면 전체 21개의 업체중 15개가 專門民泊業體이고 호텔(1), 유스호스텔(1), 모텔(2), 여관(1), 여인숙(1)으로 학생층의 수련회와 관련이 깊은 전문민박업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용평의 경우는 음식점과 숙박업이 주를 이루나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숙박업체의 분포를 보면 호텔 및 콘도미니엄(9), 유스호스텔(1), 여관(11), 여인숙(6), 전문민박업(1)으로 대성리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용평리조트내의 숙박시설은 호텔(1), 콘도미니엄(3), 유스호스텔(1)로 객실수는 1,063실의 대규모이다. 이 지역은 관광시장으로 부터의 거리가 멀고 종합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宿泊滯在型의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다. 용평리조트의 배후도시인 橫溪里에 소재

<표 2> 관광업체 현황

| | 숙박업 | 음식점 | 카페 주점 | 기념품/ 관광 운송업 | 유기장 놀이시설 | 잡화점 | 계 |
|-----|-----------------|------------------|------------------|----------------|------------------|----------------|-----|
| 장 흥 | 7 (7.2%) | 49* (50.5%) | 20** (20.6%) | 2 (2.1%) | 10*** (10.3%) | 9 (9.3%) | 97 |
| 대성리 | 21** (32.8%) | 15*** (23.4%) | 1 (1.6%) | - (0%) | 4 (6.3%) | 23* (35.9%) | 64 |
| 용 평 | 28** (21.5%) | 45* (34.5%) | 21*** (16.2%) | 5 (3.9%) | 13 (10.0%) | 18 (13.8%) | 130 |

자료: 현지조사 및 면사무소 제공

註: * 집중도 1위 업종, ** 2위 업종, *** 3위업종

한 숙박업체와 음식점의 분포는 이 지역이 도암면의 중심지이며 하계 고냉지채소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수요와도 관련이 있으나 상당부분이 용평리조트를 찾는 관광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동계에는 절대적이다.

III. 觀光地 開發이 周邊地域에 미친 影響

1. 經濟的 影響

(1) 觀光業體의 增加

관광업체(시설)는 관광활동의 매개체로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관광수입과 고용을 창출한다. <표 3>은 사례지역의 관광업체 수의 변화추이를 개발의 초기단계인 1981년 부터 3년단위로 조사한 것이다. 관광업체의 수는 용평-장흥-대성리의 순이고 세지역 모두 1987년이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세지역 모두 1987년을 전후하여 관광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관광객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① 장흥 : 관광지지정(1986년) 이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개발초기에 비해 업종이 다양화 되었다. 음식점, 카페 및 주점, 유키장 및 놀이시설이 관광업체의 증가를 주도했다. 이것은 이지역이 관광시장과 매우 근접한 관광지인 관계로 산책, 피크닉과 같은 야외위락활동과 더불어, 이들 관광시설 내에서의 실내위락활동이 결합된 체재시간이 짧은 當口歸還型의 관광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업체비율에서는 미약하지만 최근에 숙박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2년 사이에 생겼고 호텔(1)과 모텔(5)로 고급 숙박업체이다.

② 대성리 : 1987년 이전까지 관광업체증가와 업종의 변화도 미약하다. 최근 3년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잡화점, 숙박업, 음식점이 주도하였다. 특히 잡화점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지역의 관광업체의 증가가 장흥과 용평에 비해 미약하고, 업종의 구성이 단순하며 잡화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관광매력물이 水邊의 자연관광자원만으로 단순하고, 관광활동이 야외위락활동

과 학생층의 수련회를 주로하는 관광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용평 : 업종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이후로는 음식점과 카페 및 주점이 증가를 주도했다. 그러나 숙박업체는 완만한 수적 증가추세와는 달리 상당한 질적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87년 이후로 4개의 여인숙이 폐업을 하여⁸⁾ 동기간에 숙박업에 신규참여한 업체 수는 10개이다. 이들 신규업체의 구성을 보면 호텔(3), 콘도미니엄(5), 장급여관(2)으로 숙박업체가 고급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기간 용평리조트에서는 2개의 콘도미니엄(621실)을 신설하여 숙박업체가 대형화 고급화 추세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숙박업체의 質的, 量的 변화는 전형적인 체재형의 관광지인 이곳에서 숙박형태간의 競爭을 낳았다. 이곳에서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추세를 신설된 고급숙박업체가 흡수하여 저급숙박업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에 따르면 민박의 경우도 고급숙박업체의 수용한계가 발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수요를 갖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숙박형태별 선호도를 보면 고급숙박업체(호텔, 콘도), 중급숙박업체(장급여관), 민박, 여인숙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인 위락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용평리조트는 동계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지내에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결과, 각종의 관광시설이 입지하여 관광객의 수요를 단지내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황계리에 형성된 관광촌락이 이지역의 관광산업에 있어 고유의 영역을 갖지 못하고 용평리조트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숙박업에 있어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용평리조트가 숙박시설 투자를 자제하여 용평리조트-위락시설, 지역자본-숙박시설투자로의 역할분담 개발방식이 제기되고 있다.⁹⁾

8) 현지 조사에 의하면, 저급숙박업체인 여인숙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영난의 원인으로서는 현대식 숙박업체의 증가로 여인숙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지적되었다.

9) 도암면변영회, 1989, 대관령권의 위상과 개발방향에 관한 세미나-주제발표 논문집-및 도암면변영회 면담시 제기된 의견.

〈표 3〉 관광업체의 변화추이

| | | 숙박업 | 음식점 | 카페 주점 | 기념품/ 관광 운송업 | 유기장 놀이시설 | 잡화점 | 계 |
|-----|------|-----|-----|----------|----------------|-------------|-----|-----|
| 장흥 | 1981 | - | 6 | - | - | 1 | 1 | 8 |
| | 1984 | - | 11 | 1 | - | 1 | 2 | 15 |
| | 1987 | 1 | 23 | 3 | 1 | 4 | 6 | 38 |
| | 1990 | 7 | 49 | 20 | 2 | 10 | 9 | 97 |
| 대성리 | 1981 | 4 | 4 | - | - | 1 | 10 | 19 |
| | 1984 | 5 | 5 | - | - | 1 | 11 | 22 |
| | 1987 | 10 | 6 | - | - | 1 | 14 | 31 |
| | 1990 | 21 | 15 | 1 | - | 4 | 23 | 64 |
| 용평 | 1981 | 17 | 6 | 2 | - | 1 | 9 | 35 |
| | 1984 | 21 | 11 | 6 | 1 | 1 | 10 | 50 |
| | 1987 | 22 | 19 | 13 | 2 | 7 | 16 | 79 |
| | 1990 | 28 | 45 | 21 | 5 | 13 | 18 | 130 |

자료: 면사무소의 總事業體調查報告書 및 지역주민의 확인을 토대로 작성

(2) 地域雇用效果

사례지역의 관광업체의 고용상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당 고용자수가 적고 季節的 雇用과 日用職 雇用的 비율이 높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용평의 경우는 용평리조트 1개업체의 총고용이 10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의 업체의 고용정도는 장흥의 업체당 3.6명, 대성리의 2.1명과 비슷한 규모인 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평리조트의 경우는 대자본에 의한 종합휴양지인 관제로 고용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겨울철 스키시즌과 여름철의 계절적 고용의 비율이 매우 높아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용평리조트의 경우 계절적 고용은 12월, 1월, 2월의 동계시즌과 7월, 8월의 하계시즌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과 강릉지역의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어, 계절적 고용에 의한 地域雇用效果는 나타나지 않는다.

관광업체 종사원의 居住地 分布를 보면 대체로 관광지와 인접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흥과 용평의 경우 인접한 대도시에서의 통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성리는 관광지의 주변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용평의 경우는 관광지 인근 도시인 강릉에서의 통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이 관광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표 4〉 관광업체 종사원의 雇用狀態 (단위/명)

| | 업체수 | 정규 고용 | 계절적고용 | 일용직고용 | 계 |
|-----|-------|-------|-------|-------|------|
| 장 흥 | 25(6) | 48 | 33 | 8 | 89 |
| 대성리 | 20(9) | 30 | 9 | 3 | 42 |
| 용 평 | 18(7) | 454 | 567 | 116 | 1137 |

자료: 설문조사

註1: 업체수의 ()는 고용이 없는 업체의 수

2: 일용직 고용은 월평균 고용인의 수

3: 용평의 경우는 용평리조트의 정규고용; 423, 계절적고용; 559, 일용직고용; 116 포함.

고용규모에 비해 미약하다. 이는 용평리조트의 정규직원의 출신지별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는데 정규직원중 道岩面 출신자의 비율은 13.5%이고 도암면을 포함한 江原道の 비율이 60.9%로 나타나¹⁰⁾ 대자본에 의한 종합휴양지형 관광지개발의 경우는 고용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관광지 및 주변 지역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최창의, 1989, 지역개발효과의 지역화 방안, 대관령의 위상과 개발방향에 관한 세미나-주제발표논문집-, p.49.

〈표 5〉 관광업체 종사원의 거주지 분포

(단위 / 명)

| | 동일리 | 동일면 | 동일군 | 서울 | 의정부 | 강릉 | 기타 | 계 |
|-----|-----|-----|-----|----|-----|-----|-----|-----|
| 장 흥 | 18 | 4 | 7 | 13 | 24 | - | - | 66 |
| 대성리 | 21 | 7 | 1 | 7 | - | - | 1 | 37 |
| 용 평 | 56 | 24 | 11 | 46 | - | 213 | 103 | 453 |

자료 : 설문조사

註 : 용평의 경우는 453명중 용평리조트의 직원이 423명임.

〈표 6〉 관광업체 物品購買地의 地域的 分布

| | 업체수 | 동일리 | 동일면 | 동일군 | 서울 | 의정부 | 강릉 | 기타 |
|-----|-----|-----|-----|-----|----|-----|----|----|
| 장 흥 | 22 | 1 | 1 | 2 | 6 | 12 | - | - |
| 대성리 | 13 | 1 | 4 | 1 | 6 | - | - | 1 |
| 용 평 | 13 | 5 | - | - | 1 | - | 5 | - |

자료 : 설문조사

註 : 관광업체의 총 물품구매액의 50%를 넘는 구매 지역의 수

(3) 觀光業體의 地域購買效果

관광업체에서 소비되는 物品에 대한 購買는 관광업으로 발생하는 間接效果(indirect effect)에 속한다.¹¹⁾ 관광업체의 물품구매로 인한 지출은 이들 업체에 물품을 판매하는 非觀光關聯業體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표 6〉을 보면 관광업체의 물품구매의 해당 지역에 대한 연계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장흥은 인접한 대도시인 서울과 의정부에, 대성리는 서울에 물품구매지가 집중되어 있어 관광업체의 購買支出와 관련된 간접효과가 이들 관광지에서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용평의 경우는 현 지조달과 인접도시인 강릉과의 연계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物品購買 市場에 대한 接近性의 差異를 반영한다. 그러나 대규모 관광업체인 용평리조트의 지역구매는 橫溪里 일대의 관광업체와는 달리 서울(45%)과 강릉(40%)에 집중되어 있고 地域內 購買는 15%에 불과해¹²⁾ 관광업체의 규모에 따른 물품구매의 패턴이 다름을 보여준다.

(4) 民泊

民泊은 관광지 주민이 관광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현금 수입을 획득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표 7〉

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민박활동 참여가구에 대한 자료이다. 민박에 사용하는 방의 수, 수입, 민박을 위한 건축 및 개조에 있어 대성리의 민박활동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용평의 경우는 전형적인 체재형의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관광자가 민박을 하는 기간이 동계의 스키시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민박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대성리의 경우는 관광행태와 관련이 깊는데 이 지역의 관광자가 주로 젊은 학생층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수련회의 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성리는 이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권의 일일관광권에 속하지만 관광자의 특성과 선호에 의해 一泊滞在型의 관광활동도 탁월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흥의 경우는 관광시장과의 거리가 매우 근접한 일상권에 속하는 관광지인 관계로 민박은 하계 피서철에 미미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5) 地價變動

농촌지역의 관광지화는 土地價格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시킨다. 토지가격의 상승은 토지소유자에게는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개발비용의

11) 관광의 경제적 편익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로 구분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 김사현, 1990, 관광경제학, pp. 274~278.을 참조.

12) 최창의, 1989, 앞의 논문, p.50.

〈표 7〉 民泊 現況

| | 민박가구 | 민박사용 방 수 | 건물개조 | 연평균 민박 수입 |
|-----|------|-------------|------|-----------|
| 장 흥 | 3 | 2.3 개 | 1 가구 | 10 만원 |
| 대성리 | 13 | 4.0 개 | 8 가구 | 310 만원 |
| 용 평 | 8 | 2.3 개 | 2 가구 | 31 만원 |

자료: 설문조사

증가, 토지투기로 인한 토지 매각자의 인구유출, 빈부격차의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다. 사례지역은 모두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8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한 地價上昇이 발생하였다. 지가상승 추세에 대한 관광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사례지역이 속한 郡의 지가변동과 비교하면, 석현리와 양주군, 대성리와 가평군의 경우는 비슷한 상승추세를 갖는다. 그러나 횡계리와 평창군의 비교는 횡계리의 경우가 월등히 높은 상승추세를 갖고 평창군은 정체상태이다.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 국민관광지개발은 개발초기의 계획면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이 지가상승이다. 이들 國民觀光地開發은 본래 개발지구의 순위를 정해 단계적인 土地收用을 하고자 했으나 지가상승의 폭이 매우 커서 토지수용을 통한 추가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2. 社會文化的 影響

(1) 觀光地의 人口推移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80년대 초반 이후로 사례관광지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觀光地化가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양상인 인구유출에 따른 人口減少의 경향을 逆轉시키거나 抑制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석현리: 장흥국민관광지가 소재한 석현리는 관광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비농가, 여성인구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농가 비율의 증가는 관광개발 이후 관광업체의 증가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례관광지에 비해 여성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관광업체의 구성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음식점, 카페 및 주점에 집중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대성2리: 대성리 국민관광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성2리의 인구추이는 1982년에서 1986년 사이에 지속적인 감소후 약간의 변동을 보이며 정체상태에 있다. 남녀의 인구비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③ 횡계리: 용평리조트의 진입로에 자리잡고 있

〈표 8〉 사례지역의 地價變動

(단위: 천원 / m²)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7 | 1989 |
|-----|------|------|------|------|------|------|------|
| 석현리 | 미발간 | | | | | | |
| 대성리 | 주택지대 | 10 | 13 | 18 | 18 | 45 | 51 |
| 횡계리 | 상업지대 | 60 | 60 | 76 | 97 | 250 | 600 |
| | 주택지대 | 15 | 18 | 30 | 36 | 45 | 76 |

자료: 한국감정원 발행 전국토지시가지조사표(상급지 기준)

註1: 석현리: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1981년 당시 실거래가로 상급지가 평당 4,000원, 1990년 현재의 실거래가는 100만원이상

2: 1985년, 1986년은 미발간

〈표 9〉 사례지역 郡의 年平均 地價變動指數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양주군 | 100 | 107 | 133 | 148 | 157 | 183 | 195 | 232 | 373 |
| 가평군 | 100 | 112 | 142 | 170 | 191 | 223 | 236 | 288 | 422 |
| 평창군 | 100 | 104 | 110 | 116 | 118 | 123 | 128 | 142 | 162 |

자료: 건설부의 年平均 地價變動率을 變動指數로 환산

〈표 10〉 관광지의 人口推移

| | 년도 | 인구 | 가구 | 남 | 녀 | 농가 | 비농가 |
|------|------|------|------|------|------|-----|------|
| 석현리 | 1982 | 286 | 73 | 142 | 144 | 37 | 36 |
| | 1985 | 302 | 84 | 138 | 164 | 33 | 51 |
| | 1989 | 331 | 84 | 148 | 188 | 28 | 56 |
| 대성2리 | 1982 | 962 | 206 | 485 | 477 | - | - |
| | 1986 | 712 | 187 | 341 | 371 | - | - |
| | 1990 | 739 | 202 | 377 | 362 | 49 | 153 |
| 횡계리 | 1982 | 6403 | 1446 | 3433 | 2970 | 427 | 1019 |
| | 1986 | 6696 | 1613 | 3575 | 3121 | - | - |
| | 1990 | 6679 | 1705 | 3738 | 3149 | - | - |

자료 : 군 통계연보, 면사무소 및 이장 제공자료

는 횡계리는 도암면의 중심지로 도암면 전체인구(9,637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횡계리의 인구는 1982년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횡계리 역시 비농가의 비율이 높으나 타 사례지역에 비해 여성인구의 비율이 낮다.

(2) 人口移動

사례지역의 인구가동상황을 보기 위해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동안의 주민등록표상의 人口轉出入을 조사한 것이 〈표 11〉과 〈표 12〉이다. 〈표 11〉에 의하면 인구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현리의 경우 3년 동안에 전입후 전출해간 수가 36건, 대성리의 경우 72건으로 인구의 단기적 유동이 매우 심하다. 횡계리가 속한 도암면의 경우는 다른 사례관광지와는 달리 전출이 더 많은데, 같은 기간 전입자와 전출자의 합이 면 전체의 인구수에¹³⁾ 육박해 短期的 人口流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입인구의 배출지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석현리와 대성리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암면의 경우는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인접지역에서의 전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현리의 전입인구의 직전거주지는 경기도가 46%, 서울이 42%로 두지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대성리는 경기도가 50%, 서울이 37%로 경기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용평의 경우는 강원도 70%, 서울 14%로 강원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례관광지의 전입인구의 직전

거주지 분포는 관광시장으로 부터의 거리가 멀 수록 관광지의 인접지역과의 관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사례지역의 轉出入者 數 (1987년-1989년)

| 전 입 | | | 전 출 | | |
|-----|------|------|-----|------|------|
| 석현리 | 대성2리 | 도암면 | 석현리 | 대성2리 | 도암면 |
| 89 | 177 | 3750 | 74 | 151 | 5008 |

자료 : 석현리, 대성2리 주민등록색인표에서 조사 용평의 자료는 인구동태보고서

〈표 12〉 轉入者의 排出地分布(1987년-1989년)

| | 석현리 | 대성2리 | 도암면 |
|----|-----|------|-----|
| 서울 | 37 | 66 | 48 |
| 부산 | - | 1 | 5 |
| 대구 | - | - | 4 |
| 인천 | 2 | 3 | 1 |
| 경기 | 41 | 88 | 13 |
| 강원 | 3 | 4 | 235 |
| 충북 | - | 2 | 6 |
| 충남 | 1 | 7 | 3 |
| 경북 | - | 2 | 6 |
| 경남 | - | 1 | 3 |
| 전북 | 4 | 3 | 4 |
| 제주 | - | 1 | 6 |
| 계 | 89 | 177 | 334 |

註 : 장흥, 대성리는 동기간의 주민등록 색인부 전수 조사, 용평의 자료는 매해 1월의 도암면의 인구 동태보고서

13) 1990년 도암면의 인구는 9673명.

〈표 13〉 居住期間에 따른 관광산업 참여의 분포

| 관광관련성 | 장흥 | | 대성리 | | 용평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거주기간 | | | | | | |
| 10년 미만 | 18 | 8 | 12 | 2 | 7 | 9 |
| 10년 이상 | 5 | 6 | 7 | 4 | 15 | 14 |
| 원주민 | 7 | 17 | 11 | 24 | 9 | 11 |
| 소계 | 30 | 31 | 30 | 30 | 31 | 34 |
| 합계 | 61 | | 60 | | 65 | |

자료 : 설문조사

(3) 居住期間과 觀光産業 參與의 關係

설문조사 결과 居住期間에 따른 관광산업의 참여 분포를 보면 〈표 13〉에서 보듯이 전입자집단의 경우가 原住民 보다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산업 관련주민중 전입자의 비율은 장흥 77%, 대성리 63%, 용평 71%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에 전입한 총전입자중 관광산업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장흥 62%, 대성리 76%, 용평 49%로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성리의 전입자가 관광산업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성리에 비해 타지역이 전입자의 관광산업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흥의 경우는 서울에 인접한 관계로 통근자 및 은퇴자의 이주와 관련이 깊고, 용평의 경우는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냉지 농업과 관련된 영농목적의 이주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입기간에 따른 관광산업 참여비율을 보면 장흥과 대성리는 10년 미만의 전입자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용평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전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環境의 影響

관광지의 개발에는 관광자를 유인하기 위한 관광자원의 商品化 過程이 포함된다.¹⁴⁾ 이러한 관광자원의 상품화는 관광활동을 위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광관련시설의 건축은 관광지의 物理的 景觀을 변화시키며, 농촌지역이 관광지화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리적 경관의 변화가 매우 크게 된다. 또한 관광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전화,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과도한 관광시설의 투자와 대량의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收容力의 限界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쓰레기, 혼잡, 공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1) 物理的 景觀의 變化

사례관광지는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시행되었고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한 관광시설의 증가가 이루어져 외적 경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장흥과 대성리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일정 구역의 토지가 수용되어 기반관광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졌고, 용평의 경우는 쌍용그룹의 계열회사인 쌍용양회(주) 소속 용평사업본부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대규모 종합위락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관광시설의 건설과 함께 이들 관광시설지구 및 인근에는 소규모의 관광자본에 의한 관광위락시설이 입지하여 관광촌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설입지의 형태는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흥의 경우는 山岳溪谷型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계곡과 그 옆을 지나는 도로변에 길게 관광촌락이 형성되었고, 관광시장에 매우 인접한 입지적 특성에 의해 단기체재형의 관광활동이 주를 이루어 음식점, 카페 및 주점, 놀이시설들이 주요 경관을 형성하였다.

대성리의 경우는 북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기반관광시설이 조성되었고, 일반 관광업체는 관광지정지구 외곽의 경춘국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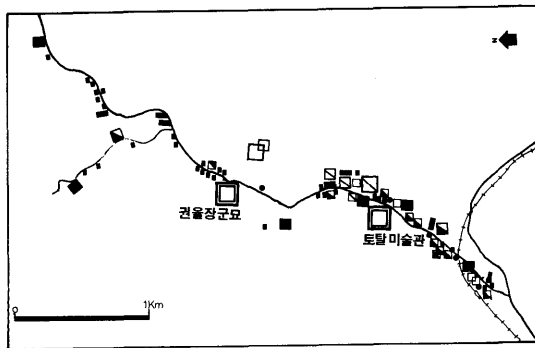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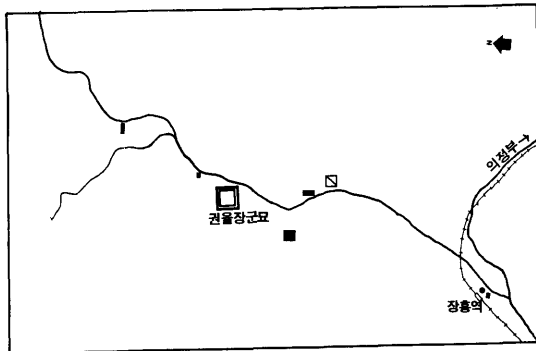
14) 小池 洋, 1973, 觀光開發と 地理學, 地理, Vol. 18, No.3, p.20. (한동효, 김영성, 1987, 앞의 논문, p.24에서 재인용).

과 구운천, 원대성천 주변에 음식점, 민박촌, 잡화점이 주를 이루는 관광촌락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이러한 입지시설의 특성은 일일관광과 학생층의 일박수련회가 주를 이루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용평의 경우는 주 관광시설인 용평리조트와 횡계리의 관광촌락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용평리조트는 발왕산 북사면의 용산리에 각종 위락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결합된 관광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횡계리의 관광촌락은 이곳에서 약 4km 떨어진 영동고속도로의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횡계리는 도암면의 중심지인 관계로 각종 기능이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에 들어 현대적인 숙박시설의 입지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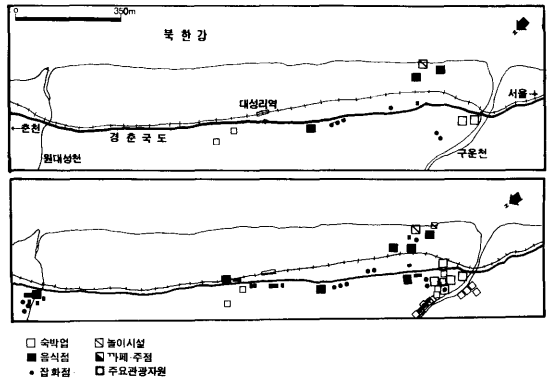
(2) 騒音-混雜 및 汚染의 發生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의 관광지화는 급격한 물리적 경관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규모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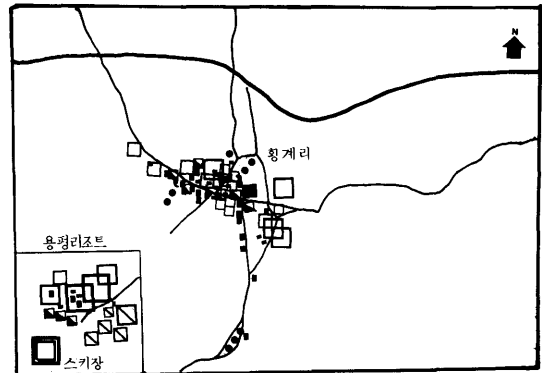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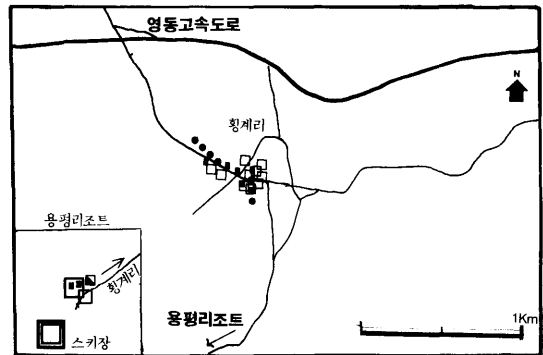


- 숙박업
- 음식점
- 잡화점
- 놀이시설
- ▣ 카페·주점
- 주요관광자원

〈그림 2〉 長興 地域 觀光村落의 變化 (1981년-1990년)



〈그림 3〉 大成里 地域 觀光村落의 變化 (1981년-1990년)



- 숙박업
- 음식점
- 잡화점
- 놀이시설
- ▣ 카페·주점
- 주요관광자원

〈그림 4〉 龍平 地域 觀光村落의 變化 (1981년-1990년)

註 : 횡계리에서 용평리조트까지의 거리는 약 4Km

해 월등히 많은 관광자의 단기적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및 혼잡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자연의 수용력을 능가하는 쓰레기의 발생으로 인한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례관광지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각 관광지의 물리적 경관을 지도화한 것에서 보듯이 10년간 각 관광지는 좁은 면적에 급격한 관광시설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리규모의 농촌지역에 입지한 관계로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광시설과 현지주민의 생활공간이 혼재해 있어 관광지화의 부산물인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흥의 경우 4km의 좁고 긴 계곡을 따라 관광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주민의 주거지 또한 국민관광지 지정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들 업체와 혼재되어 있어 관광지와 생활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쓰레기의 처리는 주1회의 수거차량에 의존하나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며, 쓰레기 수거지역에 속하지 않은 업체는 자체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대성리의 경우도 주민생활공간과 관광업체가 혼재하고 있으며, 국민관광지 지정지구인 북한강변을 제외한 경춘기도변과 구운천 주변은 민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음-혼잡과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

용평의 경우는 주된 관광시설인 용평리조트가 주민의 생활공간인 횡계리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직접적인 환경적 스트레스가 장흥 및 대성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IV. 觀光影響에 관한 住民意識

이 장에서는 사례관광지에 거주하고 있는 住民들의 觀光影響에 대한 意識을 살펴본다. 관광영향에 대한 항목은 經濟的 影響에 대한 評價(4), 社會文化的 影響에 대한 評價(4), 環境的 影響에 대한 評價(3), 觀光開發에 대한 評價 및 意識(5)의 총 16개로 구성되었다. 地域住民은 觀光産業과 關聯된 集團과 關聯되지 않은 集團으로 區分되어 분석되었다.

分析資料는 지역주민이 16개의 설문항목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약간 아니다, 4: 그저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185개 이며, 설문분포는 觀光産業 關聯 住民의 경우 장흥(30), 대성리(30), 용평(30),

非觀光産業關聯 住民의 경우는 장흥(31), 대성리(30), 용평(34)로 지역간에 균형을 맞추었다.

分析方法은 7점 척도로된 응답자료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評價의 程度가 頻度와 點數平均으로 표시되었고, 集團間的 差異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分散分析과 X^2 檢定을 이용해 점수평균과 빈도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단, X^2 검정에 이용된 7점척도의 자료는 각 cell의 수가 5개미만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다(7-6-5), 보통(4), 아니다(1-2-3)의 3개의 척도로 자료를 재조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3개의 척도로 조정된 자료에 있어서도 각 cell당 빈도가 5미만인 자료가 전체 cell의 29%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결과는 분산분석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 검증에 있어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1. 經濟的 影響에 대한 評價

관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所得과 雇用增大 效果(E_1), 觀光收入의 地域外 流出(E_2), 物價 및 所費性向의 上昇(E_3), 土地投機(E_4)에 관한 4개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표 14>는 관광산업관련 주민, <표 15>는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의 관광의 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응답분포, 점수평균, 지역간 차이에 관한 분산분석과 X^2 검정의 통계치와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16>은 지역별로 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영향평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두 집단간의 점수평균과 유의수준 0.05에서의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觀光産業關聯 住民: <표 14>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E_1)는 지역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토지투기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유발(E_4)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관광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가상승 및 소비성향증대 유발(E_3)은 세지역 모두 부정적인 관광영향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도에 있어 용평-대성리-장흥의 순으로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수입의 지역외 유출(E_2)은 용평(67%)의 경우가 장흥(30%)과 대성리(27%)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수입의 지역외 유출(E_2)에서 나타나는 지역간의 차이는 관광자본의 성격과 관련된 결과로 보

〈표 14〉 경제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지역의 소득 및 고용증대에 도움이 됨 E ₁ | 장 흥 | 21 | 5 | 4 | 70% | 5.33 | 1.81 | F = 0.830 P = .4393 | X ² = 1.164 P = .7971 |
| | 대성리 | 21 | 7 | 2 | 70% | 5.00 | 1.29 | | |
| | 용 평 | 23 | 4 | 3 | 77% | 5.53 | 1.72 | | |
| 관광수입이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E ₂ | 장 흥 | 9 | 7 | 14 | 30% | 3.57 | 1.79 | F = 8.782 P = .0003* | X ² = 13.307 P = .0099* |
| | 대성리 | 8 | 5 | 17 | 27% | 3.33 | 1.45 | | |
| | 용 평 | 20 | 4 | 6 | 67% | 5.00 | 1.74 | | |
| 물가상승과 소비 성향을 부추김 E ₃ | 장 흥 | 19 | 4 | 7 | 63% | 4.73 | 2.07 | F = 5.500 P = .0056* | X ² = 6.102 P = .1916 |
| | 대성리 | 21 | 3 | 6 | 70% | 4.90 | 1.67 | | |
| | 용 평 | 27 | 1 | 2 | 90% | 6.07 | 1.26 | | |
| 땅투기로 토지소유자만이 이익을 보았음 E ₄ | 장 흥 | 22 | 3 | 5 | 73% | 5.40 | 2.03 | F = 0.160 P = .8521 | X ² = .8030 P = .9380 |
| | 대성리 | 22 | 2 | 6 | 73% | 5.50 | 1.83 | | |
| | 용 평 | 24 | 2 | 4 | 80% | 5.67 | 1.65 | | |

註 : *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
분산분석 df=2/87, X²검정 df=4

〈표 15〉 경제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비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지역의 소득 및 고용증대에 도움이 됨 E ₁ | 장 흥 | 9 | 5 | 17 | 29% | 3.10 | 2.15 | F = 11.253 P = .0000* | X ² = 19.290 P = .0007* |
| | 대성리 | 13 | 8 | 9 | 43% | 4.07 | 1.44 | | |
| | 용 평 | 26 | 4 | 4 | 77% | 5.09 | 1.40 | | |
| 관광수입이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E ₂ | 장 흥 | 18 | 8 | 5 | 58% | 4.94 | 1.93 | F = 2.382 P = .0980 | X ² = 4.761 P = .3127 |
| | 대성리 | 12 | 8 | 10 | 40% | 4.17 | 1.70 | | |
| | 용 평 | 21 | 5 | 8 | 62% | 5.09 | 1.71 | | |
| 물가상승과 소비 성향을 부추김 E ₃ | 장 흥 | 21 | 4 | 6 | 68% | 4.90 | 1.90 | F = 3.342 P = .0397* | X ² = 8.078 P = .0887 |
| | 대성리 | 20 | 6 | 4 | 67% | 5.03 | 1.67 | | |
| | 용 평 | 31 | 1 | 2 | 91% | 5.88 | 1.41 | | |
| 땅투기로 토지소유자만이 이익을 보았음 E ₄ | 장 흥 | 24 | 3 | 4 | 77% | 5.39 | 1.76 | F = 2.899 P = .0601 | X ² = 6.778 P = .1481 |
| | 대성리 | 21 | 5 | 4 | 70% | 5.67 | 1.63 | | |
| | 용 평 | 32 | 1 | 1 | 94% | 6.27 | 1.08 | | |

註 : *는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
분산분석 df=2/92, X²검정 df=4

이다.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는 관광산업의 구성이 소규모의 업체들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용평은 대규모 외부자본인 용평리조트에 의해 관광활동과 관광수입이 주도되고 있어 관광수입의 지역외 유출현상에 대해 타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및 소비성향증대 유발(E₃)에 대한 평가에서 용평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시각

을 보이는 것은, 장흥과 대성리에 비교할때 이 지역의 관광활동이 고급위락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물품구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非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15〉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E₁)에 관해서 용평의 주민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에 대성리의 주민

〈표 16〉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역내 집단간의 차이

| 항목 지역 | 지역의 소득 및 고용증 대에 도움이 됨 E ₁ | | 관광수입이 외부로 유출 되고 있음 E ₂ | | 물가 상승과 소비성향 을 부추김 E ₃ | | 땅투기로 토지 소유자 만 이익 보았음 E ₄ | |
|----------|---|-------|--------------------------------------|-------|-------------------------------------|------|--|------|
| 장흥 | 5.33 | 3.10* | 3.57 | 4.94* | 4.73 | 4.90 | 5.50 | 4.39 |
| 대성리 | 5.00 | 4.07* | 3.33 | 4.17* | 4.90 | 5.03 | 5.40 | 5.67 |
| 용평 | 5.53 | 5.09 | 5.00 | 5.09 | 6.07 | 5.88 | 5.67 | 6.27 |

註: 수치는 동일지역내 관광관련주민-비관광관련주민의 평균.

* 표시는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

은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장흥의 주민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지역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 및 소비성향증대(E₃), 토지투기(E₄)는 용평-장흥-대성리의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수입의 지역의 유출(E₂)은 지역간의 차이 없이 대체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지않은 주민이 평가하는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E₁)에서의 지역간 차이는 觀光産業의 規模, 觀光活動의 特性, 觀光地의 立地的 特性, 觀光産業에 대한 지역의 依存度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의 규모나 관광활동의 특성으로 볼때, 장흥과 대성리가 고용효과가 적은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야외위락활동 중심의 일일관광이 주를 이루어 관광자의 지출규모가 적은데 비해서, 용평은 대규모 업체가 관광산업을 주도하여 고용효과가 높고 체제형의 고급위락활동에 따른 관광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흥 주민의 평가는 이 지역이 서울 대도시권에 인접한 관계로 비관광관련 주민에게 있어 소득 및 고용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타지역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성리는 지역의 특성상 관광산업 의존도에 대한 인식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의 D₂항에 따르면 대성리의 비관광관련 주민은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중요도를 타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觀光産業關聯 與否에 따른 影響評價의 差異:
〈표 16〉

관광관련 여부에 따른 영향평가의 차이는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E₁)와 관광소득의 외부유출(E₂)의 항목에서 장흥과 대성리에 나타났고 그외의 항

목에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용평의 경우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서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은 관련주민 보다 관광영향에 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때 관광의 경제적인 영향은 지역이나 관광관련여부에 상관없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성향을 증진시키며(E₃), 토지투기를 유발하여 부의 편중을 초래하는(E₄) 부정적인 것으로 주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및 소득증대 효과(E₁)와 관광수입의 지역의 유출(E₂)은 지역간,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라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관광지가 갖는 관광산업의 특성에 따른 관광자본의 규모의 차이, 관광활동의 특성의 차이, 서울 및 수도권 관광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관광지의 입지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社會文化的 影響에 대한 評價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의 평가는 풍기문란과 犯罪의 增加가 教育環境에 미치는 影響(S₁), 觀光施設 및 觀光業體가 住民의 餘暇生活에 미치는 影響(S₂), 觀光者 및 外部文化와의 接觸을 통해 관광지 주민이 얻는 文化的 利得에 대한 評價(S₃), 지역주민간의 結束力에 미치는 影響(S₄)의 4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觀光産業關聯 住民: 〈표 17〉

주민 결속력(S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이득(S₃)에 관해서는 지역간의 차이 없이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S₁)에 관해서는 용평(73%), 대성리(57%)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표 17〉 사회문화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풍기문란과 범죄로 교육환경이 악화 되었음 S ₁ | 장 흥 | 12 | 4 | 14 | 40% | 3.97 | 2.33 | F = 2.960 P = .0570 | X ² = 10.330 P = .0352* |
| | 대성리 | 17 | 3 | 10 | 57% | 4.77 | 2.15 | | |
| | 용 평 | 22 | 5 | 3 | 73% | 5.20 | 1.37 | | |
| 관광시설과 업소가 여가생활에 도움이 됨 S ₂ | 장 흥 | 15 | 11 | 4 | 50% | 4.57 | 1.79 | F = 4.273 P = .0170* | X ² = 10.950 P = .0271* |
| | 대성리 | 12 | 8 | 10 | 40% | 3.80 | 1.61 | | |
| | 용 평 | 9 | 5 | 16 | 30% | 3.33 | 1.54 | | |
| 외지인과 타지역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되 좋음 S ₃ | 장 흥 | 12 | 9 | 9 | 40% | 4.10 | 1.94 | F = 0.351 P = .7044 | X ² = 1.600 P = .8088 |
| | 대성리 | 8 | 12 | 10 | 27% | 4.00 | 1.60 | | |
| | 용 평 | 10 | 9 | 11 | 33% | 3.73 | 1.70 | | |
| 지역주민간의 결속력이 전보다 약해졌음 S ₄ | 장 흥 | 20 | 4 | 6 | 67% | 4.83 | 1.46 | F = 0.612 P = .5446 | X ² = 0.502 P = .9733 |
| | 대성리 | 19 | 4 | 7 | 63% | 4.93 | 1.74 | | |
| | 용 평 | 19 | 3 | 8 | 63% | 4.50 | 1.55 | | |

〈표 18〉 사회문화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비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풍기문란과 범죄로 교육환경이 악화 되었음 S ₁ | 장 흥 | 23 | 2 | 6 | 77% | 5.26 | 2.05 | F = 0.688 P = .5048 | X ² = 2.061 P = .7245 |
| | 대성리 | 24 | 3 | 3 | 80% | 5.70 | 1.75 | | |
| | 용 평 | 23 | 4 | 7 | 68% | 5.18 | 1.87 | | |
| 관광시설과 업소가 여가생활에 도움이 됨 S ₂ | 장 흥 | 4 | 5 | 22 | 13% | 2.52 | 1.61 | F = 3.985 P = .0219* | X ² = 7.083 P = .1315 |
| | 대성리 | 6 | 4 | 20 | 20% | 2.73 | 1.53 | | |
| | 용 평 | 13 | 6 | 15 | 38% | 3.62 | 1.84 | | |
| 외지인과 타지역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되 좋음 S ₃ | 장 흥 | 4 | 8 | 19 | 13% | 2.74 | 1.51 | F = 0.597 P = .5523 | X ² = 0.063 P = .9995 |
| | 대성리 | 4 | 8 | 18 | 13% | 2.97 | 1.47 | | |
| | 용 평 | 5 | 9 | 22 | 15% | 3.15 | 1.50 | | |
| 지역주민간의 결속력이 전보다 약해졌음 S ₄ | 장 흥 | 17 | 6 | 8 | 55% | 4.61 | 2.17 | F = 0.190 P = .8265 | X ² = 2.904 P = .5739 |
| | 대성리 | 21 | 8 | 3 | 70% | 4.90 | 1.45 | | |
| | 용 평 | 20 | 8 | 6 | 57% | 4.74 | 1.76 | | |

보이나 장흥(40%)은 그 정도가 낮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S₂)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용평-대성리의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흥의 경우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非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18〉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해서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은 각 항목에 대해서 뚜렷한 지역차를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주민여가생활에 대한 기여(S₂)에 있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속에서 용평의 주민이 타지역에 비해

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觀光産業關聯 與否에 따른 影響評價의 差異 :

〈표 19〉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S₁)에 대해서 장흥, 주민여가생활에 미친 영향(S₂)과 문화적 이득에 미치는 영향(S₃)에 대해서 장흥과 대성리가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른 영향평가의 차이를 나타냈다. 주민 결속력에 미친 영향(S₄)에 관해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용평은 전항목에서 집단간의 차이

〈표 19〉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지역내 집단간의 차이

| 항목 지역 | 풍기문란과 범죄로 교육 환경이 악화됨 S ₁ | 관광시설과 업소가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됨 S ₂ | 외지인과 타지역에 대 한 이해심을 갖게 됨 S ₃ | 지역주민 간의 결속력 이 전보다 약해짐 S ₄ |
|----------|--|--|---|---|
| 장 흥 | 3.97 5.26* | 4.57 2.52* | 4.10 2.74* | 4.83 4.61 |
| 대성리 | 4.77 5.70 | 3.80 2.73* | 4.00 2.97* | 4.93 4.90 |
| 용 평 | 5.20 5.18 | 3.33 3.62 | 3.73 3.15 | 4.50 4.74 |

註 : 수치는 동일지역내 관광관련주민-비관광관련주민의 평균.

* 표시는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

〈표 20〉 환경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도로, 교통편, 상 하수도등 생활 여 건이 나아짐 N ₁ | 장 흥 | 21 | 3 | 6 | 70% | 5.30 | 2.25 | F = 0.424 P = .6558 | X ² = 1.966 P = .7419 |
| | 대성리 | 19 | 2 | 9 | 63% | 4.93 | 2.02 | | |
| | 용 평 | 24 | 2 | 4 | 80% | 5.37 | 1.56 | | |
|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가 많아지 고 오염이 됨 N ₂ | 장 흥 | 29 | 1 | 0 | 97% | 6.30 | 0.88 | F = 6.660 P = .0020* | X ² = 10.507 P = .0327* |
| | 대성리 | 22 | 3 | 5 | 73% | 5.37 | 1.75 | | |
| | 용 평 | 29 | 4 | 7 | 63% | 4.93 | 1.66 | | |
| 시끄럽고 주위가 혼잡해 생활에 방해가 됨 N ₃ | 장 흥 | 19 | 2 | 9 | 63% | 4.63 | 1.88 | F = 8.321 P = .0005* | X ² = 9.823 P = .0435* |
| | 대성리 | 18 | 4 | 8 | 60% | 4.77 | 1.76 | | |
| | 용 평 | 9 | 3 | 18 | 30% | 3.10 | 1.63 | | |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 전체에서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관련주민의 평가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관광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결속력에 미친 영향(S₄)은 지역,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는 관광지화의 보편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향 평가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 보다는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두드러져,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 주민 生業基盤의 觀光産業關聯 與否가 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環境의 影響에 對한 評價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도로, 교통편, 상하수도, 전화등 下部構造 投資에 의한 生活與件의 改善에 미친 영향(N₁), 쓰레기의 증가등 環境에 미친 영향(N₂), 混雜과 騒音등의 발생이 주민의 生

活에 미친 영향(N₃)의 3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20〉

하부구조투자에 의한 생활여건의 개선(N₁)에 대해서는 세지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등 환경의 오염(N₂)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를 했는데 장흥(97%)-대성리(73%)-용평(68%)의 순으로 지역간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소음, 혼잡등 생활불편(N₃)에 관해서는 장흥(63%), 대성리(60%)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용평은 30%의 주민만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차이를 보였다.

생활불편(N₃)의 평가에 있어 이러한 지역차이를 보이는 것은 觀光活動地域과 住民의 生活空間과의 分離 與否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 관광시설과 업체가 주민의 거주공간과 혼재해 있는데 반하여, 용평의 경우는 주관광활동 지역인 용평리조트와 횡계리가 4km정도 떨어져 있어 영향을 적게 받은 결과로 보인다.

非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21〉

〈표 21〉 환경적 영향의 평가 및 지역간 차이 : 비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도로, 교통편, 상 하수도등 생활 여 건이 나아짐 N ₁ | 장 흥 | 18 | 5 | 8 | 58% | 4.68 | 2.12 | F = 0.775 P = .4636 | X ² = 4.284 P = .3689 |
| | 대성리 | 20 | 7 | 3 | 67% | 5.07 | 1.46 | | |
| | 용 평 | 25 | 5 | 4 | 74% | 5.21 | 1.63 | | |
|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가 많아지 고 오염이 됨 N ₂ | 장 흥 | 29 | 0 | 2 | 94% | 6.26 | 1.39 | F = 5.624 P = .0050* | X ² = 12.032 P = .0171* |
| | 대성리 | 26 | 0 | 4 | 87% | 6.10 | 1.63 | | |
| | 용 평 | 23 | 5 | 6 | 68% | 5.03 | 1.78 | | |
| 시끄럽고 주위가 혼잡해 생활에 방해가 됨 N ₃ | 장 흥 | 27 | 0 | 4 | 87% | 5.84 | 1.62 | F = 22.094 P = .0000* | X ² = 36.107 P = .0000* |
| | 대성리 | 28 | 1 | 1 | 93% | 6.00 | 1.20 | | |
| | 용 평 | 11 | 9 | 14 | 32% | 3.71 | 1.77 | | |

〈표 22〉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내 집단간의 차이

| 항목 지역 | 도로, 교통편,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이 나아졌음 N ₁ |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가 많아 지고 오염이 되었음 N ₂ | 시끄럽고 주위가 혼잡해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음 N ₃ | | | |
|----------|---|---|--|------|------|-------|
| 장 흥 | 5.30 | 4.86 | 6.03 | 6.26 | 4.63 | 5.84* |
| 대성리 | 4.93 | 5.07 | 5.34 | 6.10 | 4.77 | 6.00* |
| 용 평 | 5.37 | 5.21 | 4.93 | 5.03 | 3.10 | 3.71 |

註 : 수치는 동일지역내 관광관련주민-비관광관련주민의 평균.

* 표시는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

하부구조투자에 의한 생활여건의 개선(N₁)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등 환경의 오염(N₂)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를 했는데, 장흥(94%)과 대성리(87%)의 경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용평(68%)의 순으로 지역간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소음과 혼잡으로 인한 생활불편(N₃)에 관해서는 장흥(87%)과 대성리(93%)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용평은 32%의 주민만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차이를 보였다.

관광産業關聯 與否에 따른 影響評價의 差異 : 〈표 22〉

소음과 혼잡등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불편(N₃)에 관한 항목에서 장흥과 대성리에서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른 주민의 영향평가의 차이를 나타냈다. 관광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 평가를 나타냈으나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의 경우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용평의 경우는 전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관광개발로 인한 도로, 교통편, 상하수도, 전화등 하부구조 투자에 의한 생활여건의 개선에 미친 영향(N₁)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쓰레기의 증가등 환경에 미친 영향(N₂), 혼잡과 소음등의 발생이 주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N₃)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관광산업과 관련이 없는 주민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환경적 스트레스에 관해서 용평과 타지역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觀光活動地域과 住民 居住地域間의 空間的 分離 與否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觀光開發에 대한 評價 및 意識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개발방향에 대한 의식은 관광개발시 地域與件과 住民意見의 반영에 관한 滿足度(D₁), 지역의 觀光産業에 대한 重要度에 대한 認識의 程度(D₂), 外部資本의 投資에 의한 觀光開發에 관한 意見(D₃), 經濟的 價値 對 環境保全의 상대적 重要度(D₄), 經濟的 價値 對 社會文化

〈표 23〉 관광개발의 평가 및 인식, 지역간 차이 : 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관광개발시에 지역여건과 주민의 견이 반영됨 D ₁ | 장 흥 | 8 | 5 | 17 | 27% | 3.37 | 1.97 | F = 0.546 P = .5812 | X ² = 1.778 P = .7765 |
| | 대성리 | 8 | 3 | 19 | 27% | 3.10 | 2.02 | | |
| | 용 평 | 5 | 4 | 21 | 17% | 2.87 | 1.53 | | |
| 관광산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 D ₂ | 장 흥 | 24 | 2 | 4 | 80% | 5.73 | 1.70 | F = 5.585 P = .0052* | X ² = 10.795 P = .0290* |
| | 대성리 | 24 | 3 | 3 | 80% | 5.73 | 1.68 | | |
| | 용 평 | 14 | 8 | 8 | 47% | 4.40 | 1.96 | | |
| 지역발전을 위해 외지인의 투자도 불가피함 D ₃ | 장 흥 | 19 | 5 | 6 | 63% | 5.07 | 2.07 | F = 1.317 P = .2730 | X ² = 6.204 P = .1844 |
| | 대성리 | 23 | 0 | 7 | 77% | 5.57 | 2.11 | | |
| | 용 평 | 21 | 5 | 4 | 70% | 4.80 | 1.27 | | |
| 소득증대를 위해 환경오염은 감수해야 함 D ₄ | 장 흥 | 18 | 4 | 8 | 60% | 4.57 | 2.22 | F = 2.322 P = .1041 | X ² = 5.773 P = .2167 |
| | 대성리 | 17 | 3 | 10 | 57% | 4.33 | 2.26 | | |
| | 용 평 | 10 | 4 | 16 | 33% | 3.47 | 1.72 | | |
| 잘살기 위해 미풍양속, 인심의 약화는 불가피함 D ₅ | 장 흥 | 16 | 2 | 12 | 53% | 4.33 | 2.35 | F = 0.676 P = .5109 | X ² = 2.276 P = .6851 |
| | 대성리 | 16 | 4 | 10 | 53% | 4.80 | 2.22 | | |
| | 용 평 | 17 | 1 | 12 | 57% | 4.17 | 1.97 | | |

的 價値의 상대적 重要度(D₅)의 5개 항목이 조사 되었다.

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23〉

기존의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도(D₁)는 지역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D₂)은 장흥(80%)과 대성리(80%)가 매우 높은 반면에 용평(40%)은 낮은 편이었다. 외부자본의 투자(D₃)에 관해서는 세지역 주민 모두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적 가치對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도(D₄), 경제적 가치對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D₅)에 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흥과 대성리의 관광산업관련 주민의 경우 관광산업의 중요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용평지역의 주민은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관광업체인 용평리조트에 의해 관광수입과 관광활동이 독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非觀光産業關聯 住民 : 〈표 24〉

기존 관광개발에 관한 만족도(D₁)에 대해 세지역 모두 매우 낮은 평가를 나타냈고 장흥의 경우가 만

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D₂)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성리(70%), 용평(53%)에 비해 장흥(29%)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외부자본의 투자의 불가피성(D₃)에 대해서 장흥(52%)과 용평(53%)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성리(70%)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적 가치對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도(D₄), 경제적 가치對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D₅)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차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존 관광개발에 관한 만족도(D₁)와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D₂)에 있어 장흥이 부정적인 평가로 타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이 서울 대도시권에 매우 인접한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에게 있어 관광산업이 갖는 비중이 타지역의 주민에 비해 약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觀光産業關聯 與否에 따른 影響評價의 差異 :

〈표 25〉

장흥의 경우 주민의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라 기존 관광개발에 관한 만족도(D₁), 지역의 관광산

〈표 24〉 관광개발의 평가 및 의식, 지역간 차이 : 비관광산업관련 주민

| 항목 | 지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동의율 | 평균 | 표준 편차 | 분산 분석 | X ² 검정 |
|--|-----|-----|----|-----|-----|------|-------|-------------------------|---------------------------------------|
| 관광개발시에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이 반영됨 D ₁ | 장 흥 | 2 | 4 | 25 | 7% | 2.19 | 1.42 | F = 4.069 P = .0202* | X ² = 7.878 P = .0961 |
| | 대성리 | 5 | 9 | 16 | 17% | 3.17 | 1.55 | | |
| | 용 평 | 6 | 10 | 18 | 18% | 3.18 | 1.70 | | |
| 관광산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 D ₂ | 장 흥 | 9 | 10 | 12 | 29% | 3.58 | 1.88 | F = 5.240 P = .0070* | X ² = 13.700 P = .0083* |
| | 대성리 | 21 | 4 | 5 | 70% | 5.10 | 1.58 | | |
| | 용 평 | 18 | 3 | 13 | 53% | 4.21 | 2.01 | | |
| 지역발전을 위해 외지인의 투자도 불가피함 D ₃ | 장 흥 | 16 | 5 | 10 | 52% | 4.16 | 2.12 | F = 2.794 P = .0663 | X ² = 3.965 P = .4107 |
| | 대성리 | 21 | 5 | 4 | 70% | 5.20 | 1.52 | | |
| | 용 평 | 18 | 5 | 11 | 53% | 4.32 | 1.85 | | |
| 소득증대를 위해 환경오염은 감수해야 함 D ₄ | 장 흥 | 10 | 5 | 16 | 33% | 3.29 | 1.88 | F = 0.756 P = .4721 | X ² = 1.591 P = .8103 |
| | 대성리 | 14 | 4 | 12 | 47% | 3.87 | 2.01 | | |
| | 용 평 | 15 | 4 | 15 | 50% | 3.74 | 1.90 | | |
| 잘살기 위해 미풍양속, 인심의 약화는 불가피함 D ₅ | 장 흥 | 9 | 6 | 16 | 29% | 3.32 | 2.12 | F = 0.861 P = .4260 | X ² = 3.038 P = .5515 |
| | 대성리 | 13 | 4 | 12 | 43% | 4.00 | 2.18 | | |
| | 용 평 | 16 | 3 | 15 | 47% | 3.85 | 2.11 | | |

〈표 25〉 관광개발에 대한 평가 및 의식의 지역내 집단간의 차이

| 항목 지역 | 관광개발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이 잘 반영됨 D ₁ | 지역 | 관광산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 D ₂ | 지역발전을 위해 외지인의 투자도 불가피함 D ₃ | 소득증대를 위해 환경오염도 감수해야 D ₄ | 잘살기 위해 미풍양속, 약화는 불가피함 D ₅ | | | | |
|-------|--|-------|--|---------------------------------------|------------------------------------|--------------------------------------|------|-------|------|------|
| 장 흥 | 3.37 | 2.19* | 5.73 | 3.58* | 5.07 | 4.16 | 4.57 | 3.29* | 4.33 | 3.32 |
| 대성리 | 3.10 | 3.17 | 5.73 | 5.18 | 5.57 | 5.20 | 4.33 | 3.87 | 4.80 | 4.00 |
| 용 평 | 2.87 | 3.18 | 4.40 | 4.21 | 4.80 | 4.32 | 3.47 | 3.74 | 4.17 | 3.85 |

주 : 수치는 동일지역내 관광관련주민-비관광관련주민의 평균.

*표시는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

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D₂), 경제적 가치對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도(D₄)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성리와 용평의 경우는 주민의 관광관련 여부에 따른 차이를 전항목에 걸쳐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존 관광개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가지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장흥의 비관광관련주민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었고, 외부자본 투자의 불가피성에 있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가치對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도(D₄), 경제적 가치對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D₅)에 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흥의 경우는 관광산업 관련 여부에 따른 평가의 차를 보이고 있는데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의 경우에 관광의 영향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V. 綜合討論

이상에서 본 연구는 觀光地의 特性을 달리하는 세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지화가 周邊地域에 미치는 實際的인 影響과 住民의 意識에 미치는 影響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상이한 관광지적 특성, 관광의 실제적 영향, 주민의 관광의식간의 關聯性을 綜合的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세 사례지역간에 나타나는 관광지적 특성의 차이는 크게 觀光市場과의 距離의 差에 의한 立地의 特性, 觀光資源의 差異에 의한 觀光活動의 特性, 觀光産業의 規模에 따른 觀光資本의 特性으로, 이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광영향의 지역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관광업체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에는 관광시장과의 거리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관광지의 입지적 특성과 관광자원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활동의 특성이 작용하여 日常圈 관광지인 장흥에는 음식점, 카페 및 주점, 一日 및 週末圈인 대성리에는 잡화점, 숙박업(전문민박업), 宿泊圈인 용평에는 음식점, 숙박업으로의 지역적 차이를 발생시켰다. 雇用效果의 지역적 차이는 관광자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대규모 관광자본이 입지하고 있는 용평관광지의 고용창출 효과가 타지역에 비해 탁월했다. 그러나 地域雇用效果 및 地域物品購買效果는 해당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주요 관광시장인 수도권 지역에 근접한 관광지일수록 관광시장으로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박은 숙박권의 관광지인 용평보다 대성리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성리에서 학생층의 수련회(M.T)가 활발히 행해지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며, 용평의 경우는 고급숙박시설의 확대에 의해 민박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간에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인구의 잦은 전출입에 의한 단기적 이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轉入者의 배출지 분포는 관광시장에 근접할수록 관광시장과의 관계가 높은 추세를 보였고, 관광산업의 참여도 전입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양상을 보였다.

관광시설과 업체의 증가로 세지역 모두 급격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겪어 觀光村이 형성됐으나 이로 인한 혼잡과 소음, 오염의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관광활동의 특성 차이에 의해 용평지역은 주관광활동지역과 주민거주공간이 분리되어 타지역에 비해 환경적 스트레스를 약하게 받고 있다.

관광의 영향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소득 및 고용효과, 하부구조투자에 의한 생활여건의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그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관광산업 관련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분석된 결과를 보면, 관광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 관광산업에 관련이 없는 주민집단의

경우가 관련이 있는 주민보다 否定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나 특이한 점은 觀光市場에 近接한 관광지일수록 관광산업관련 주민과 비관련 주민간에 관광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 시장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직업선택등 非觀光産業으로의 代案選擇의 가능성이 높아, 비관광관련 주민에 대한 관광산업의 역할이 약하게 認識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평의 경우는 관광영향의 전항목에 걸쳐 관광산업관련여부에 따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觀光資本의 特性에 따른 관광산업의 구조가 外部資本大企業에 의한 主觀光活動 및 一次的 觀光收入의 獨占현상에 의해 주민의 觀光影響意識形成에 관광산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지역對 외부대 자본이라는 비교상황이 더 큰영향을 미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經濟的 影響에 대한 평가는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만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그외에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관광관련 주민의 경우는 관광수입의 지역의 유출문제, 물가상승과 소비성향의 증대 유발이었고, 비관련주민에게 있어서는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였다. 용평지역의 관광관련 주민의 경우는 타지역과 달리 관광수입의 유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외부자본의 대기업에 의해 관광산업이 독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반면에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는 관광산업이 소규모의 업체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관광관련 주민은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에 관심을 보이고 관광수입의 유출에는 미약한 반응을 보였는데, 용평주민이 긍정적 평가를 한데 반하여 장흥주민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대성리 주민은 중립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 지역에 인접한 관광지의 경우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역할이 타지역에 비해 약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토지투기 유발로 인한 부의 편중문제는 지역간,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의 자가변동 추세에서도 나타났듯이 관광지 전반에 걸친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社會文化的 影響에 관해서는 거의 전항목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였다.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광관련 주민에게 있어 주민 여가생활에 대한 기여도 뿐이었는데, 장흥주민의 경우만 타 지역에 비해 약간 긍정적 평가를 하였을 따름이다. 이를 통해 볼때 관광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관광지의 특성에 관련없이 현지주민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관광에 대한 관련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보다는 주민의 社會經濟的인 특성에 따라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環境的 影響은 하부구조 투자에 의한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오염문제, 소음 및 혼잡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문제는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관광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차를 보였다. 오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흥의 경우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용평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혼잡 및 소음의 문제는 장흥과 대성리가 부정적인데 반하여 용평의 경우는 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우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관광활동지역과 주민 거주공간이 장흥과 대성리의 경우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용평은 空間的 分離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반응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觀光開發에 대한 評價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관광지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비관광산업관련 주민집단간에 지역차를 보이는데, 타지역에 비해 장흥의 주민이 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가지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역차를 나타내는데 장흥과 대성리에 비해 용평의 관광관련주민이 낮은 동의를 보였고, 비관광주민의 경우는 장흥의 주민이 낮은 동의를 보였다. 특히 장흥주민의 관광산업관련여부에 따른 동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비관광관련주민이 갖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관광개발을 위한 외부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광개발방향으로서 경제적 가치 對 환경보전, 경제적 가치 對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선택의 설문에 대해서는 지역차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응답의 분포도 편차가 심하여 뚜렷한 개발의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때, 세 사례관광지에서의 관광지화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의 영향은 經濟的, 社會文化的, 環境的 측면의 전 범위에서 지역의 변화를 유발시켜 지역주민의 관광의 영향에 대한 意識을 형성하였고, 그 지역간 차이는 각 지역의 觀光地的 特性과 관련해 나타나는데,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유발시켰다. 주민의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에 의해 나타나는 관광의식의 차이는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이 없는 주민의 관광영향의식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민의 영향의식보다 否定的이라는 일반적 예측이 가능한 양상을 보였지만, 대도시 시장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관광관련 집단간의 영향의식의 차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관광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비관광관련 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더불어 용평에서 보듯이 지역에 입지한 관광자본의 특성 또한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 結 論

본 연구는 長興國民觀光地, 大成里國民觀光地, 龍平리조트라는 상이한 관광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農村地域에 立地한 觀光地를 대상으로 하여, 관광활동이 觀光地的 特性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주변 농촌지역과 주민의 觀光意識形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관광지적 특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관광의 실제적 영향, 주민의 관광영향의식간의 相互關聯性을 파악함으로써 소규모 농촌지역에 입지한 관광지의 관광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여기서 얻어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관광지의 특성과 현황의 파악을 통해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는 관광지적 특성은, 大都市 觀光市長과의 距離의 差에 의해 나타나는 관광지의 立地的 特性, 觀光活動의 差에 의해 나타나는 觀光資源의 特性, 觀光産業의 規模와 性格에 의해 나타

나는 觀光資本의 特性이다.

둘째, 이러한 관광지적 특성이 複合的으로 作用해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관광의 영향은 觀光業體의 分布, 雇用規模, 雇用 및 物品購買의 地域的 效果, 民泊, 物理的 景觀의 變化등에서 지역간에 차이를 발생시켰다.

세째, 지역주민의 觀光影響意識은 대체로 所得 및 雇用增大效果, 下部構造投資에 의한 生活與件의 改善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반면, 그 외의 영향에 대해서는 中立的인 태도나 否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째, 관광영향의식의 지역간 차이는 經濟的인 影響과, 環境的인 影響에 관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社會文化的인 影響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

다섯째, 觀光產業關聯與否에 따른 住民集團間의 意識의 差異는 관련이 없는 주민집단의 경우가 더

否定的이었고, 大都市 觀光市長에 近接한 관광지일 수록 관광관련여부에 따른 집단간의 관광영향의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小規模의 農村立地 관광지에 대한 研究와 관광지의 特性에 따른 觀光地間의 比較研究를 통해 관광의 영향을 관광지의 특성, 지역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의식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으나, 實際的인 影響에 관한 具體的인 糾明이 不足했으며, 주민의식연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社會經濟的 特性, 人口學的 特性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좀더 細密化하지 못한 限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소지역연구와 관광지 특성에 의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Impacts of Tourist Resorts on the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 A Case Study of Janghung, Daesungri, and Yongpyong Tourist Resorts

ABSTRACT

Young Yang Kim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ourist resorts on the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with Janghung, Daesungri, and Yongpyong tourist resorts as the case study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identify the changing modes reflected by the economic,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which are occurring comb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rts and tourist activities. Second, the evaluation by residents on the regional changes from the tourist activities are analyzed, and then it is compared by regions and by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involved in tourist industries. And third, this study also illuminates the impacts of tourist resorts gen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m in rural areas by examining the interrelated features of tourist resorts, regional impacts of tourist resort development, and perception of residents on the impacts of tourist resorts.

The principal data used in this study are statistical data, on-the-spot survey data,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on the residents and tourist establishments. And ANOVA together with X² test is applied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residents on the impacts of tourist resorts. The research findings are to be followe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rts showing regional differences are varied i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rts caused by the accessibility to large cities in tourist market, i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urc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ourist activities, and also in the ch-

aracteristics of tourist capital by the difference in size and features of tourist industries.

Second, impacts of tourist activities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rts compoundedly exerts in the surrounding regions created regional variations in the distribution of tourist establishments, employment size, regional effects of employment and purchasing goods, number of private tourist home, and change of physical landscape.

Thir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on the impacts of tourist activities revealed a positive response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such as income, employment growth, a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hile they responded negatively or took a neutral attitude to the other influences.

Fourth, region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n the impacts of tourist activities was remarkable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but was slight in the sociocultural impacts.

Fifth, the perception of resident groups classified by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involved in tourist industries was more negative in the resident group with no involvement. And the nearer a tourist resort stands to the tourist market of large cities, the more likely is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n the impacts of touris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xtent of involvement.

Keywords : Characteristics of Tourist Resorts, Impacts of Tourist Activities, Changes of Rural Area, Perception of Residents